

#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융복합적 요인: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이재영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Convergent Factors Affecting Problem Behaviors in Out-of-school Adolescents: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Jaeyoung Le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yungs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연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49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남자는 337명, 여자는 16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행동은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행동 중 인터넷게임중독과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높았다.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0배 높았다( $p=.008$ , 95% CI=1.18-3.06).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2배 높았다( $p=.006$ , 95% CI=1.21-3.03).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때, 문제행동의 양상과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별, 문제행동, 청소년, 학업중단, 융복합적 요인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lem behavior and its convergent factors in out-of-school adolescents,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is study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sing out-of-school adolescents research data at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total of 499 out-of-school adolescents (337 males, 162 females). The type of the 8 problem behaviors (run away from home, drop out, prostitution, violence, internet game addiction, theft, drug addiction, and smoking) were identifi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mong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participants, internet game addiction and theft were more significantly high in male out-of-school adolescents than female out-of-school adolescents. In internet game addiction, male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1.90 times higher than female out-of-school adolescents ( $p=.008$ , 95% CI=1.18-3.06). In theft, male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1.92 times higher than female out-of-school adolescents ( $p=.006$ , 95% CI=1.21-3.03). When the social measures were provided for those adolescents, a distinguished approach is required depending on the problem behavior and gender.

**Key Words** : Gender, Problem behavior, Adolescent, Student dropouts, Convergent factor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7.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Jaeyoung Lee (leejy@ks.ac.kr)

Received August 7,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18,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 제도자체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하며[1], 법적으로는 초등·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혹은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2].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4년 9-18세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약 377,157명으로 추정된다[3]. 그러나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교육부 집계 상 6-7만 명에 이르며, 상급 학교 비진학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은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3].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는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으나[4],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가 문제행동 혹은 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이었다[3].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가운 시선, 학업 중단으로 인한 선생님·친구 관계단절,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 곤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영향, 학생이 아님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 소외,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을 경험하게 된다[1].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을 잃는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의미한다[3].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 청소년들보다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쉽고 건강관리에 취약하며, 문제행동 발생빈도가 높다[3,4]. 기존 국내 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은 음주나 흡연 비율, 성관계 경험, 음주 후 성관계 경험 등이 높았다[5]. 또한 청소년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이 성인기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라고 보고하고 있기에[6], 급증하고 있는 건강취약 아동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법’이라 불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2]. 해당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

조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현, 취업지원, 자립지원,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2],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지원 노력을 시급하고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하고 있다[3].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재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문제행동은 빈도나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7,8],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재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10배 정도 높고[9],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10]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인 반사회적 행동, 공격적 행동 등이 높게 나타난다[9,11]. 그러나 내재화된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 위축 등은 여자 청소년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9,11]. 이와 같이 문제행동 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조사에서도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3].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므로 재학 청소년보다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행동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에 따른 양상 차이를 융복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제행동 관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정도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융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흡연)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출원기관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횡단적 통계자료[12]를 활용하여 시행된 이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위기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등 학령기별 다수 발생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12]. 원 자료는 학교 밖 청소년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한 자료이다. 원 자료 중 설문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24세에 해당하는 남녀 학교 밖 청소년 6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8가지 문제행동(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에 대한 최초 경험시기, 횟수,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9-24세 남녀 학교 밖 청소년이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임의표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대상자 605명 중 초등학교 8명과 19세 이상 청년 98명을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 중·고등학생 499명(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34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337명(67.5%), 여자는 162명(32.5%)이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교급, 부모동거형태를 조사하였다. 학교급은 중학생·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부모

동거형태는 한부모와 사는 경우, 양쪽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 2.3.2 문제행동유형

문제행동의 유형은 총 8가지,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13-15]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제행동 간의 통계를 통해 각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단일 문항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일 문항 척도는 단순성, 요약성,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16],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결과[13,15]와 상호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행동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16].

- 가출: 가출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학업중단: 학업중단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학업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학업중단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성매매: 성매매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폭력: 폭력(가해)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인터넷게임중독: 인터넷게임중독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인터넷게임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인터넷게임중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절도: 절도(훔치는 것)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절도를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절도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약물중독: 약물중독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약물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약

물중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흡연: 흡연은 ‘귀하는 담배를 피웠거나 피우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는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를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임의 표집한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시행되었다[12]. 조사대상 접근의 한계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눈덩이표집법을 이용하였다. 해당 기관 및 대상자는 B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부산광역시 대안교육 지원 센터, 대안학교,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학교폭력 예방 재단 부산지부, 청소년 회복 센터(사범형 그룹홈), 보호 관찰소, 검정고시 접수자 등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4개월이었다. 설문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리서치기관에 위탁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해당 기관에 자료이용을 승인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획득하였다(IRB number: KSU-18-04-005).

##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일반적 특성 및 문제행

동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문제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검증력은 Nagelkerke  $R^2$ , 분류정확도 및 Hosmer-Lemeshow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 3. 결과

### 3.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연령, 학교급, 부모동거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 연령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 16.41세, 여자 학교 밖 청소년 16.25세였으며, 학교급은 고등학생(남 70.3%, 여 66.7%)이 중학생(남 29.7%, 여 33.3%)보다 많았으며, 부모동거형태는 여자 학교 밖 청소년(50.6%)이 남자 학교 밖 청소년(45.4%)보다 한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3.2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폭력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56.1%, 여자 학교 밖 청소년의 37.0%가 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5.88, p<.001$ ).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41.5%, 여자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N=499)

Variables	Categories	Gender				$t/\chi^2$	p
		Male (n=337)		Female (n=162)			
		n/Mean	%/±SD	n/Mean	%/±SD		
Age		16.41±1.49		16.25±1.39		1.10	.271
Grade	Middle school student	100	29.7	54	33.3	0.69	.407
	High school student	237	70.3	108	66.7		
Cohabiting parents	Two parent	184	54.6	80	49.4	1.19	.274
	Single parent	153	45.4	82	50.6		

SD, Standard deviation.

학교 밖 청소년의 21.6%가 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9.10$ ,  $p<.001$ ).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57.6%, 여자 학교 밖 청소년의 35.2%가 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21.92$ ,  $p<.001$ ). 약물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5.9%, 여자 학교 밖 청소년의 1.9%가 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4.15$ ,  $p=.042$ ). 흡연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의 89.1%, 여자 학교 밖 청소년의 80.6%가 경험하였고,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5.89$ ,  $p=.015$ ).

### 3.3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종속변수는 문제행동이 발생한 경우를 1,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드화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차이검정에서 유의한 문제행동(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을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 분류정확도 및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Model 1: 종속변수는 폭력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을 투입하였다(Nagelkerke  $R^2=.175$ , 분류정확도=66.4%,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104). 그 결과, 폭력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

Model 2: 종속변수는 인터넷게임중독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폭력,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을 투입하였다(Nagelkerke  $R^2=.101$ , 분류정확도=68.7%,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084). 그 결과, 인터넷게임중독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인터넷게임중독 발생이 1.90배 증가하였다( $p=.008$ , 95% CI=1.18-3.06).

Model 3: 종속변수는 절도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약물중독 및 흡연을 투입하였다(Nagelkerke  $R^2=.260$ , 분류정확도=68.9%,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187). 그 결과, 절도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절도 발생이 1.92배 증가하였다( $p=.006$ , 95% CI=1.21-3.03).

Model 4: 종속변수는 약물중독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및 흡연을 투입하였다(Nagelkerke  $R^2=.093$ , 분류정확도=94.9%,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954). 그 결과, 약물중독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

Table 2. Comparison of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N=499)

Variables	Categories	Gender				$\chi^2$	p
		Male (n=337)		Female (n=162)			
		n	%	n	%		
Runaway	Yes	241	71.5	115	71.0	0.01	.903
	No	96	28.5	47	29.0		
Dropout	Yes	159	47.2	78	48.1	0.04	.839
	No	178	52.8	84	51.9		
Prostitution	Yes	14	4.2	8	4.9	0.16	.690
	No	323	95.8	154	95.1		
Violence	Yes	189	56.1	60	37.0	15.88	<.001
	No	148	43.9	102	63.0		
Internet game addiction	Yes	140	41.5	35	21.6	19.10	<.001
	No	197	58.5	127	78.4		
Theft	Yes	194	57.6	57	35.2	21.92	<.001
	No	143	42.4	105	64.8		
Drug addiction	Yes	20	5.9	3	1.9	4.15	.042
	No	317	94.1	159	98.1		
Smoking*	Yes	279	89.1	108	80.6	5.89	.015
	No	34	10.9	26	19.4		

\*Male=313, Female=134.

Table 3. Gender effects on type of problem behaviors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N=499)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Violence			Model 2 Internet game addiction			Model 3 Theft			Model 4 Drug addiction			Model 5 Smoking		
		p	95%CI	OR	p	95%CI	OR	p	95%CI	OR	p	95%CI	OR	p	95%CI	OR
Gender (Female)	Male	.174	0.87-2.12	1.36	.008	1.18-3.06	1.90	.006	1.21-3.03	1.92	.220	0.62-7.76	2.20	.717	0.61-2.08	1.12
Violence (Yes)	No	-	-	-	.012	1.13-2.66	1.73	<.001	1.74-4.03	2.65	.268	0.65-4.71	1.75	.009	1.25-4.73	2.43
Internet game addiction (Yes)	No	.013	0.38-0.89	0.58	-	-	-	.019	0.37-0.92	0.59	.179	0.22-1.32	0.54	.801	0.47-1.81	0.92
Theft (Yes)	No	<.001	0.25-0.58	0.38	.015	0.37-0.90	0.58	-	-	-	.813	0.34-2.32	0.89	<.001	0.05-0.28	0.12
Drug addiction (Yes)	No	.277	0.21-1.56	0.58	.153	0.22-1.27	0.53	.823	0.34-2.34	0.90	-	-	-	.998	0.00	0.00
Smoking (Yes)	No	.008	0.21-0.79	0.41	.973	0.50-1.95	0.99	<.001	0.05-0.28	0.12	.997	0.00	0.00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5: 종속변수는 흡연 발생, 독립변수는 성별, 통제변수는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및 약물중독을 투입하였다(Nagelkerke  $R^2=.252$ , 분류정확도=86.6%, Hosmer-Lemeshow 검정의 유의확률=.389). 그 결과, 흡연 발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5$ ).

즉 타 문제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문제행동은 인터넷게임중독과 절도였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보다 인터넷게임중독 발생은 1.90배, 절도는 1.92배 증가하였다.

#### 4. 논의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 청소년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으로 불려온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에서 소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청소년보다 문제행동 발생이 높고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를 조사하고, 성별에 차이가 있는 문제행동을 융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지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종류는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절도, 약물중독 및 흡연이다. 본 논의에서는 각 문제행동 별로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과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흡연, 가출, 폭력,

절도 및 약물중독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행동 중 흡연(남 89.1%, 여 80.6%)과 가출(남 71.5%, 여 71.0%)은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17,18]. 흡연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남자 재학 청소년 흡연율 9.5%, 여자 재학 청소년 흡연율 3.1%였다[17]. 가출은 19,26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4년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에서 남자 재학 청소년 12.9%, 여자 재학 청소년 8.8%였다[18].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은 가해 경험만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 56.1%, 여 37.0%). 이를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과 비교하면 ‘2017년 2차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재학 청소년의 폭력 가해경험은 0.3%에 불과하였다[19].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 피해경험은 조사하지 못했는데, 재학 청소년의 폭력 피해경험은 0.7-0.8%로 알려져 있으므로[17,19]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절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남 57.6%, 여 35.2%),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의 재학 청소년 6,3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3년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절도(남 8.2%, 여 6.1%)비율[20]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절도는 청소년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청소년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6] 학교 밖 청소년의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약물중독(남 5.9%, 여 1.9%)은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보다 높았는데,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재학 청소년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1.1%에 불과하였다[17].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인터넷게임중독이었다. 인터넷게임중독은 학교 밖 청소년(남 41.5%, 여 21.6%)과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의 수치가 유사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년 인터넷과의존 실태조사'에서 10-19세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30.6%였다[21].

본 연구에서 성매매는 재학 청소년의 통계수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비교가 어렵기는 하나, 성매매는 학교 밖 청소년 남(4.2%)·여(4.9%) 모두에게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타 문제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문제행동은 인터넷게임중독과 절도였다.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은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인터넷게임중독은 1.90배, 절도는 1.92배 높았다.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7,8], 향후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단순히 빈도만 비교하였을 뿐,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남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정 문제행동이 성별 차이가 있음을 다변량 분석을 통한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0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게임중독 비율이 높은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20,22-24]. '2013년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 재학 청소년 6,359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남자 청소년은 5.2%, 여자 청소년은 0.5%로 남자 청소년의 게임중독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20].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25,26], 인터넷 게임은 파과적인 전쟁이나 폭력적인 대결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22].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이외에 대안학교, 학교 밖 지원센터, 보호관찰소, 취업사관학교, 단기 쉼터, 이동쉼터, 소년원 등 다양한 기관에 분

포하고 있기 때문에[3]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은 어린 시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중독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27], 여가 장애수준이 높거나[28], 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25]에 문제가 심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심리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나 여가 공간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매우 매력적인 매체가 된다[24]. 따라서 재학 청소년과는 달리 학교를 가지 않아 개인에게 부여되는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1.92배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인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 재학 청소년 6,3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3년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에서 절도 경험에 대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 8.2%, 여자 청소년 6.1%였다[20].

청소년 절도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남성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6,29]. 남자 청소년은 합법적 방법인 학업 성취나 직업적 성공 등을 통해 남성성을 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절도를 자신의 남성다움을 보여 주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6,29].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 청소년도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비행을 행한다[6]. 또한 청소년의 절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30], 아동기에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행동장애의 일종인 '훔치기'의 형태로 절도가 나타날 수 있다[30]. 하지만 청소년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범죄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절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남 57.6%, 여 35.2%), 현재 사법기관이나 경찰에서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하기 보다는 훈방조치하거나 선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6]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절도라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절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들이 절도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도벽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행동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또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대한[6,30]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유형 중 인터넷게임중독과 절도는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높았으나, 폭력, 가출, 약물중독, 학업 중단, 성매매 및 흡연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문제행동은 흡연, 가출, 폭력, 절도 및 약물중독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성별에 차이를 고려한 중재가 적재적소에 적용되어야 하며, 재학 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회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출원기관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조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건학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나,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재학 청소년과는 다르게 학업 중단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문제, 생계나 경제적 빈곤,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부재 등[3]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문제행동 유형별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외현적 행동문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 불안, 위축 등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에서 높게 보고되고 있으므로[11]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문제행동을 단일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문제행동의 양상이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문제행동 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융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선행연구의 재학 청소년보다 흡연, 가출, 폭력, 절도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남자 학교 밖 청소년은 여자 학교 밖 청소년보다 인터넷게임중독은 1.90배, 절도는 1.92배 높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 혹은 조기 개입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6). *Survey and policy plan of out-of-school adolescent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ttp://old.nypi.re.kr/paper/view.np?y\\_idx=99](http://old.nypi.re.kr/paper/view.np?y_idx=99)
- [2]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Act on the support for out-of-school juvenile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46&efYd=20170321#0000>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 *2015 out-of-school adolescents survey*. PRISM.  
[http://www.prism.go.kr/homepage/lately/retrieveLatelyDetail.do?research\\_id=1382000-201500067](http://www.prism.go.kr/homepage/lately/retrieveLatelyDetail.do?research_id=1382000-201500067)
- [4] L. Chamaraman & G. Hall. (2011). School dropout prevention: What arts-based community and out-of-school-time programs can contribut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11(Suppl1), 9-27. DOI : 10.1002/yr.416
- [5] G. S. Park & M. Kim. (2016). A comparative study of



- health status between students and out-of-school youth.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4(2), 17-26.
- [6] D. H. Lee, S. J. Kim, M. Y. Cho, J. H. Lee & S. H. Bang. (2011). Understanding adolescents' theft behavio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KJYC*, 19(1), 23-47.
- [7] M. Y. Kim & H. K. Son. (2017).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influencing factors of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quantiles in high school students. *JLCCI*, 17(10), 563-580.  
DOI : 10.22251/jlcci.2017.17.10.563
- [8] Y. L. Kim & S. W. Hwang. (2016). A study on the problem drinking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en and wom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3), 262-271.
- [9] H. S. Kim. (2002). Gender difference i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2(4), 492-505.  
DOI : 10.1007/s10578-005-2691-1
- [10] L. Keltikangas-Jarvinen & M. Lindeman. (1997). Evaluations of theft, lying, and fighting in adolescence. *J Youth Adolesc*, 26(4), 467-483.
- [11] E. H. Ha, S. J. Lee, K. J. Oh & K. E. Hong. (1998). Parent-adolescent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 comparison of factor structures of K-CBCL and YSR.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9(1), 3-12.
- [12]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2014). *Research on the status and policy-directions for youth in crisis in Busan*.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bwf.re.kr/kor/CMS/Board/Board.do?mCode=MN062&page=5&mode=view&mgr\\_seq=20&board\\_seq=5947](https://www.bwf.re.kr/kor/CMS/Board/Board.do?mCode=MN062&page=5&mode=view&mgr_seq=20&board_seq=5947)
- [13] L. Kann et al. (2018).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 United States, 2017. *MMWR Surveill Summ*, 67(8), 1-114.  
DOI : 10.15585/mmwr.ss6708a1
- [14] J. E. Grant, M. N. Potenza, S. Krishnan-Sarin, D. A. Cavallo & R. A. Desai. (2011). Steal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Prevalence and clinical correlates. *J Am Acad Psychiatry Law*, 39(1), 44-52.
- [15] S. B. Holliday, M. O. Edelen & J. S. Tucker. (2017). Family functioning and predictors of runaway behavior among at-risk youth. *Child Adolesc Social Work J*, 34(3), 247-258.  
DOI : 10.1007/s10560-016-0459-z
- [16] M. L. Kim, C. W. Kim & S. H. Hwang. (2010). Validity of the single item measure for serious leisure.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34(4), 147-156.  
DOI : 10.15585/mmwr.ss6708a1
- [1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13th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tatistic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3/sub03\\_07\\_01.do](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3/sub03_07_01.do)
- [1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Harmful environment contact of adolescents total survey*. PRISM.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1500014&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B2%AD%EC%86%8C%EB%85%84%EC%9C%A0%ED%95%B4%ED%99%98%EA%B2%BD&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1500014&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B2%AD%EC%86%8C%EB%85%84%EC%9C%A0%ED%95%B4%ED%99%98%EA%B2%BD&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 [19] Ministry of Education. (2018). *2017 2nd A survey on the status of school violence*. Ministry of Education.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76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 [20]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Lowering age status and policy survey of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NDSL.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400002110>
- [21]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2016 A survey on the status of internet overdependen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lId=mssw315&artId=1325370>
- [22] H. S. Park, Y. H. Kwon & K. M. Park. (2007). Factors on internet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7(5), 754-761.  
DOI : 10.4040/jkan.2007.37.5.754
- [23] C. A. Jun, C. O. Park & E. G. Lee. (2008).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709-726.  
DOI : 10.15703/kjc.9.2.200806.709
- [24] D. K. Yang.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ensation seeking,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nternet-relate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7(2), 117-136.
- [25] S. S. So, J. S. Myung & C. S. Kim. (2011). A study of predicting variables for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Kor. J. Psychol.: Health*, 16(3), 521-535.
- [26] S. M. Bae. (2015). Factors related to internet game

- addiction of adolescents by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385-405.
- [27]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Public health model development and harmful effects survey of internet game addiction*. NDSL.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700000755>
- [28] J. Kwon, J. E. Park & J. Y. Oh. (2016). The study of the comparison on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game addiction among 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KAIS*, 17(2), 75-86.  
 DOI : 10.5762/KAIS.2016.17.2.75
- [29] M. D. Regnerus. (2002).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 theft and minor delinquency: A developmental test of peer-reported effects. *Soc Sci Res*, 31(4), 381-705.  
 DOI : 10.1016/S0049-089X(02)00010-8
- [30] K. S. Bang et al. (2017). *Human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Seoul : Medical Science.

이 재 영(Lee, Jaeyoung)

[정회원]



- 2016년 2월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아동간호, 문제행동.

· E-Mail : leeji@ks.ac.kr